

Fancy Nirvana

미래적 환상, 혼성의 풍경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매체의 진보는 인간 삶의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예전에는 미처 상상하기 어려웠던 공상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여기 저기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사이보그 인간이 탄생하는가 하면 성전환수술이라든가 유전자의 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영토의 경계가 없이 자기 증식하면서 동시에 전 지구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가 하면 첨단 전자장비로 실현된 가상현실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실재보다 더욱 리얼한 꿈과 환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되었다. 보드리야르의 표현대로 우리는 원본은 없고 현실의 모사(模寫)나 이미지가 지배하는 사회, 실재현실과 가상현실의 구분이 어려운 이른바 '시뮬라르크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바짝 다가선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앞으로의 미래사회가 유토피아가 될 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에서 수학한 뒤 최근 귀국한 미디어 설치작가 이한수는 공상 과학적인 상상력으로 테크노피아 시대의 꿈과 환상, 불안의 양상을 혼성의 풍경으로 연출하고 있다. 어두운 전시 공간 속에 형광 물질로 칠해진 다양한 도상들이나 블랙 라이트, 레이저 광선, 각종 기계장치, 자동감지 센서등을 사용한 설치 작품들은 관람객들을 새롭고 환상적인 세계로 쉽게 안내한다.

캠코더를 장착한 모형자동차(무선 우주 탐사선)가 전시장 이 곳 저 곳을 다니면서 화면을 전송받아 대형 LCD화면에 동시에 재현하고 있는 <천왕성에서 온 일기예보>(2001)는 관객들에게 우주행성 탐험을 가상체험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그런가 하면 코끼리 인형에 레이저 포인터와 프로펠러를 달아 관람객이 다가서면 작동하게 되어 있는 <메신저 Z>(2003)는 벽면에 환상적이고 키치적인 레이저 문양을 쓰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여 준다. 이들 모두 공상 과학적인 상상력의 산물로서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해 관객 참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테크노피아의 세계가 과연 인간의 이상(理想)을 실현시켜 줄 것인지 혹은 부정적인 측면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작품 곳곳에서 표출하고 있다. 여덟 개의 팔이 달린 로봇 모양의 은색 고무풍선이 관람객의 반응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로봇 투>(2001)는 전기모터에 센서가 작동하면서 공기의 주입에 의해 허수아비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 모터의 회전음과 공기가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두개의 로봇은 바닥에 엎드렸다 일어서다를 반복하지만 로봇의 동작은 활력없이 무기력하기만 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로봇 형태가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팔이 여덟 개 달린 관음보살상을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가는 이와 같이 종교적이거나 진지한 주제들을 가볍고 경쾌한 테크놀로지적 방식과 결합시켜,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면서 빠르게 변모하는 지구촌의 문명사회를 풍자한다. 우주복과 우주 헬멧을 착용한 우주인이 아주 느린 움직임으로 산속에서 기공수련을 하는 비디오 영상물 <레이저 맨 설산수도(雲山修道)>(2002) 역시 이와 흡사한 접근방식이다. 이 영상물은 선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유행하고 있는 참선 수행의 방식과 무중력 공간에서 유명한 우주인의 느린 동작의 공통점을 하나로 결합시켜 오랜 전통과 새로운 현대가 접목되는 부분에 주목을 한 작품이다.

그의 작품에서 이러한 이중 교배적 특징은 최근작인 <무아(無我) 몬스터 테크노피아>(2003)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시공간 안에서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에어리언이 예수, 성모상, 부처 등 종교적인 성인들과 함께 애니메이션기법으로 합성, 변형되고 있는 이 인터랙티브 영상, 설치작품은 공상과학적 산물과 서로 다른 차원의 종교적 형태가 뒤섞여 마치 미래의 종교 다원주의를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매체의 진보로 인하여 모든 이미지가 쉽게 가공, 변조되며 합성되고 있는 오늘날 작가는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무한대로 증식하면서 변신하고 있는 몬스터나 아바타의 캐릭터 처럼 이들 종교적인 도상들을 아우라를 제거하여 유머스럽게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과학만능의 우주 시대에 전통적인 신앙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것처럼 읽혀지기도 한다. 테크노 시대의 이러한 문화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원주의, 혼성화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서로 다른 의미를 조합해서

만든 작품제목에서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이한수 작품의 전형성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비유가 적절히 잘 표현된 작품이 <21세기 보살>(2001)과 <복제된 천사>(2002), 그리고 최근의 <팬시 니르바나(Fancy Nirvana)>(2003)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작품제목에서 전통과 현대적인 의미가 절묘하게 결합되고 있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전시 분위기에 있어서도 이들 대부분의 작품들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상징하는 도상들이 복제기술이나 첨단 테크놀로지와 결합되어 연출되고 있다. <복제된 천사>에서는 바로크 스타일의 아기 천사두상(頭像)이 다양한 색채로 복제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21세기 보살>(2001)에서는 가부좌를 하고 우주 헬멧을 쓴 서구의 정원 난장이 인형들이 마치 광배(光背)를 지닌 보살상처럼 둔갑되어 보여진다. 그런가 하면 <팬시 니르바나>(2003)에서는 동양의 전통적인 보살상이 핑크, 주황, 노랑, 녹색의 형광색으로 복제되고, 양미간 사이에는 레이저 포인터가 설치되어 가볍고 환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천사나 보살의 성스러운 이미지는 대량으로 복제되어 성스러움과 유일성을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고 소비사회의 팬시상품처럼 진열되고 있다. 안개가 자욱이 깔린 어두움 공간 속에서 발산하는 화려한 레이저 광선과 야광 빛을 발하는 복제된 도상들은 마치 현대문명의 테크놀로지적인 성과와 자본주의의 번성함을 반영하듯 화려하기만 하다. 여기서 바로크 천사상이나 정원난장이 인형, 보살상 등 이들 복제된 도상들은 작가의 연금술에 의해 블랙 라이트 볼빛 아래서 각기 다른 형광색을 발산하면서 다양한 인간 집단처럼 존재한다. 그 군상(群像)들의 얼굴 양미간 사이에는 광명을 비추는 부처의 백호(白毫)처럼 레이저 포인트가 설치되어 환상적이고 키치적인 문양(UFO라든가, 아기 천사상, 하트 모양 등)을 벽면에 투사하고 있다. 군상들의 일부는 형태가 왜곡된 채 쓰러져 나뒹굴고 있거나 빛을 잃고 양미간에 구멍만이 뚫려 있는 것들도 있다. 몇 가지 색채나 다양한 형태로 배열된 이러한 군상들은 테크노피아 시대에 있어서 지구촌 다양한 인간 집단들의 혼성문화를 반영하면서 꿈과 환상, 불안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일찍이 움베르토 에코는 2000년대 세계문명은 갖가지 문화가 뒤섞인 '잡종적혼합'이 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오늘날 자본이나 상품, 물질, 이미지, 지식, 범죄, 문화, 종교, 신념, 패션, 공해, 마약 등 지구상의 소통 가능한 것은 거의 영토적인 경계를 넘어서 쉽게 이동한다. 국경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거대자본과 무역, 금융, 생산의 전지구적인 체계는 지구 전역의 가구들, 공동체들, 민족들의 전망과 운명을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한데 묶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더 이상 각 국가만의,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 전 지구적인 체계는 이전에 뚜렷이 구분되었던 지역간, 국가간의 경계를 약화시키면서 다양한 문명권의 만남과 충돌을 야기시킨다. 그런가 하면 실시간에 전지구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넷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출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지역에 국한된 생활을 할지라도 인지할 수있는 세계는 그야말로 전지구적인 것이 되었다.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실재현실과 가상현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 등 서로 다른 양상들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혼성화되어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인간의 신체와 의식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하기 마련이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현실세계와 환상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문화현상을 패러디하고 있는 이한수의 작업은 지구촌의 오늘날 현재상황과도 무관하지않다. 아날로그 세대작가로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는 이국적인 전통음악과 함께 비트있는 테크노 음악을 즐기고, 사이언스 픽션이나 인터넷의 사이버 스페이스를 탐색하며, 첨단 전자기술이 빚어내는 멋진 신세계를 전시연출에 즐겨 사용하는 미디어 작가이기도 하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21세기 문화담론을 지배하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가상현실, 가상공간으로 대변되는 앞으로의 미래사회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런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과학기술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고조되고 있다.

작가 이한수는 이러한 시대의 꿈과 희망, 욕망이나 갈등, 모든 것이 뒤섞인 혼성문화적인 양상을 공상 과학적이고 미래적인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다.■

A Futuristic Fantasy, Landscapes of Hybridity

The rapid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rogress of media are rapidly transforming the environments of human lives. Stories previously unimaginable even in science fiction are now coming into reality. We live in an era in which cyborgs are born, and surgical sex changes and the cloning of chromosomes are possible. The Internet replicates itself like a living organism, enabling simultaneous, borderless, global communication. We are able to experience dreams and fantasies more real than our own reality in the virtual spaces created by cutting-edge electronic apparatuses. As Jean Baudrillard observes, we live in a world ruled by copies and images without originals, a world in which the reality that actually exists and virtual reality cannot be distinguished, that is, the 'society of simulacra.' Nevertheless, no one can predict whether this future society governed by science and technology will be a utopia or a dystopia.

Since the mid-1990s, returning from his studies in Germany, Lee Hansu has been dramatizing the patterns of dreams, fantasies, and diseases of the technopia era through an imagination inspired by science fiction. The diverse materials painted in fluorescent pigments in dark exhibition galleries, and installations that use black light, laser beams, a variety of machinic trappings, and automatic sensors, easily introduce viewers to a world of fantasy. A model toy car (or an unmanned space mobile) darts around in a gallery with a camcorder mounted on it that simultaneously broadcasts the captured images on a large LCD screen (Weather Forecast from Uranus, 2001). An elephant doll with a laser pointer and propeller attached to it, is activated when a viewer approaches it (Messenger Z, 2003). These are just two examples of his works that involve viewer participation and reflect dreams and fantasies about unknown worlds.

Weather Forecast that allows viewers to imaginatively experience space exploration and Messenger Z that becomes a messenger from a mysterious dimension and emits laser beams, are both products of a pseudo-scientific imagination about the future. In his works, however, we also witness expectations and worries about whether this techno-utopic world will indeed realize human ideals or exaggerate its negative outcomes. Robot Two (2001) is composed of silver rubber balloons in the shape of two robots with eight arms that inflate and deflate according to the viewer's response.

They move like scarecrows with the aid of an electric motor with a sensor that injects air into them. The robots repetitively lie down and stand up as the motor whirrs and the air goes in and out. Yet their movements seem listless. What is interesting here is that the robots' form borrows the shape of the eight-armed Guanyin Bodhisattva widely seen in Southeast Asia. In this way, Lee marries religious or serious topics with light, cheerful technological methods, and by doing so, reflects back the status of human lives in a quickly changing world. The video work Laser Man's Spiritual Exercise in Snowy Mountains (2002), which shows a space-suited and helmet-clad cosmonaut doing a Tai-Chi exercise on a mountainside, employs a similar strategy. Combining the Zen meditation exercise recently popular among laypeople and the slow motion of an astronaut swimming slowly in zero-gravity space, the video symbolically depicts the modern human being on its way to a brave new world.

and several different spiritual dimensions are all jumbled up. These days, due to digital technologies and advanced Internet media, images are easily processed, altered, and combined. Religious icons are no different from the monsters or avatars on the Internet; they both infinitely multiply and metamorphose in the virtual space of the Net, and the artist humorously parodies these icons by stripping off their auras. His parodies of the new realities of pluralism, hybridity, and identity, in the cultural environments of this new technological era are also present in the titles of his works that amalgamate different meanings.

s.

Typifying the ethos of his art and also appropriately expressing such metaphors are 21st-century Bodhisattvas (2001), Cloned Angels (2002), and more recently, Fancy Nirvana (2003). Unfolding in dark rooms, these works are composed of hundreds of plastic or plaster copies of dolls and religious icons of the East and West on the gallery floors. Clone Angels consists of heads of Baroque -style putti replicated and colored in assorted hues; in 21st-Century Bodhisattvas, western garden gnomes in space helmets and seated in lotus positions impersonate Buddhist bodhisattvas enshrouded in nimbuses; in Fancy Nirvana, an oriental bodhisattva statue, multiplied in fluorescent pinks, oranges, yellows, and greens, and emitting laser light from between their eyebrows, is reborn in more lighthearted, fantastic guises.

In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virtual reality represents reality more plausibly, and cloning technology reproduces human genetic material. Even the sacred images of angels and bodhisattvas may be replicated infinitely, and their uniqueness and sacredness cannot be guaranteed. Nothing is exempt from replication. Baroque putti, garden gnomes, bodhisattvas, etc., these replicated icons emitting all different fluorescent hues under the black light, exist like diverse human populations. Fantastic and kitschy laser-beam patterns (UFOs, putti, heart shapes, etc.) project from the icons' foreheads, in between their eyebrows, onto the gallery walls. Some of the figurines have fallen on the floor.

Some don't glow like others. A few of them have only holes but no light coming out of their heads. These icons of replication reveal the dreams, fantasies, and anxieties of our technopic era, while also reflecting the patterns of hybridity of the diverse human groups of the world.

Early on, Umberto Eco predicted that the global civilization of the new millennium will be a 'crossbred hybrid' of numerous different cultures. The territories and borders of the global village have grown increasingly narrow. The religions, cultures, politics, and economies, of the world interpenetrate one another and are hyper-sensitive to the flows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t is not easy to find uniquely national or local cultures amidst the onslaught of globalization. Everything travels across borders. This global system has weakened previously clear regional and national boundaries and is causing encounters and collisions between different civilization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we can effortlessly come in contact with many cultures in the comfort of our homes.

In our age, tradition and modernity, east and west, actual reality and virtual reality, analog and digital technologies, are in co-existence, and their distinctions are more and more vague and unclear.

related to this current situation. As an analog-generation artist living in a digital age, he enjoys techno music and fusion cuisines and likes to explore science fiction and cyber space. He is also a new media artist who likes to explore the splendid new dimensions created by cutting-edge electronic technology in his installations. However, no one can be sure whether the future society represented by digital technology, virtual reality, and virtual space, will turn out to be a utopia or a dystopia. With his particular sci-fi, futuristic imagination, artist Lee Hansu parodies contemporary culture's dreams and fantasies, desires and crises, and self-contradictory or culturally hybrid landscapes.

Lee Joon

탈 경계화 시대의 새로운 숭고의 미학

동서양의 종교적 도상들이 총출동하는 전시장은 두터운 검은 가림 막으로 햇빛을 완전히 차단했다. 주변이 어두울수록 가상과 환영의 매혹이 더 강해진다는 점에서, 전시장은 그 자체로 사이버 종교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것 같다. '무아몬(無我 Monster) 프로젝트'라 붙여진 전시부제는 이것저것이 뒤섞인 괴물의 실체, 그리고 주변과 혼연일체된 무아의 경지를 결합시킴으로서 혼성주의 미학을 드러낸다. 동서양은 물론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작가의 의도이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천 개의 눈을 가진 선녀]는 석가의 몸통과 기독교풍의 천사날개, 도교적인 선녀얼굴이 결합된 도상이다.

선녀는 형광 색이 들어간 원색 안료로 칠해져 있으며, 블랙 라이트를 받아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준다. 이러한 광학 효과는 도상의 물질성을 삭감하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준다. 그 뿐 아니다. 선녀 상에는 천 개의 눈--힌두교 신화에서 나오는 인드라의 천 개의 눈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을 상징하는 레이저가 박혀있어 사방팔방으로 붉은 색 레이저 문양을 쏘아댄다. 무성(無性)의 존재로 알려진 천사상과 창녀촌 간판으로 쓰일 것 같은 나신의 여성상들이 어지럽게 떠다니는 가운데 우뚝 서있는 도상 역시 그 자체로 온갖 신들이 모여 있는 만신전을 이룬다. 이한수의 작품은 섞일 수 없는 것을 섞는 불경스러움과 키치적인 가벼움이 짬뽕되어 있다.

[백호를 가진 흑두]는 인터랙티브 영상설치로, 검정 색 불상 머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레이저 포인터가 설치되어 있다. 천 개의 눈을 상징하는 레이저가 만들어내는, 후광같이 뿜어 나오는 문양들이 역동적이다. 또한 불두의 양미간에는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관객의 모습이 디지털 만다라의 형식으로 실시간 변형되어 맞은편 벽면에 비추어진다. 불두 앞에는 거리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관객의 모습이 확대 축소되며, 관객은 불두의 제 3의 눈 백호를 통해 디지털 만다라로 재구성된다. 누워있는 불두 앞에 펼쳐진 디지털 만다라는 그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명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 방 벽면 가득히 펼쳐지는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에서는 우주복을 입은 여인이 가부좌를 틀고 소리를 낸다. 발성명상이라고 한다. 요상한 상징적 표지와 무지개가 함께 떠 있는 산수 좋은 그곳에 우주인 마스크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은 외계인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종교의 추종자이다. 명상자가 내부의 기(氣)를 모아 소리를 내면, 화면 곳곳이 울룩불룩하게 변형된다. 작가는 그것이 미지의 생명체의 움직임일 것이라고 한다. 이 투명체가 겹치는 곳의 화면은 둥근 확대경이 지나가는듯함 왜곡된다. 주체와 세계가 상호 작용하면서 동시에 변형되는 것이다. [무아 춤]에서는 명상음악에 맞추어 느릿하게 춤을 추는데, 서양 카드처럼 대칭이 된 짝패가 중력을 초월하여 공중부양을 한다.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이 사라지는 짝패의 존재는 이 전시의 성격을 가능해준다.

피에르 고디베르는 현대문화가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 신성한 것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여기서 신성이란 세속적인 것과 대립되는 의미의 신성이기보다는, 세속적인 것과 뗄 수 없이 뒤섞인 그것이다. 하기가 언제는 안 그랬겠는가. 그렇지만 이한수의 작품에 극명하게 나타나듯이, 코드들의 광적인 혼합과 이중 교배는 지구촌 문화의 동질성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반증한다. 종교도 상품처럼 소위 잘 나가는 코드의 구색을 맞춘다. 신성은 두려움과 공포, 경외감을 낳기도 하지만, 소망과 매혹을 낳기도 한다. 이한수의 작품에서는 소망과 매혹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현대화는 자연을 포함한 세계와의 오랜 관계를 끊고 모든 것을 탈 신성화시켰지만, 인간은 본래 종교인이다.

기존 종교가 아니어도 뭐든 믿는 것이 인간이다. 진보에 대한 믿음, 이성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믿음, 예술에 대한 믿음..기타 등등. 인간은 우주공간에 내버려진 우연적인 존재임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것에서부터 최악의 것까지 시공을 초월한 영적인 대화가 시도된다. 물론 이러한 유행 속에서 그릇된 길과 유사교리, 가짜 도사들이 급속히 번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세속화, 상품화된 와중에 뭔가를 믿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기획들은 단순히 사기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뭔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과 이윤추구의 동기가 결합되어 있다. 이것이 그럴듯한 품목들을 혼합한 상품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한수의 종교적 도상의 맥락이다.

[무아 음]이나 [무아 춤]에서 정신이 직접 자연에 영향을 준다는가, 중력을 초월하는 모습은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효과들을 산출하는 기술'이라는 마법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부합되는 듯하다. 마술에 이용되는 것은 인과론적 결정주의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들에 대한 지식이다. 프레이저는 마법을 '설익은 기술같은 가짜 지식'이라고 폄하했지만,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와해되는 시뮬레이션 시대의 전위는 바로 마술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술은 최전선에 있는 과학 기술자들과 예술가들, 상품 판매업자들이 만나는 지점인 것이다. 이한수의 작품에서 마술은 신성의 활동적인 현존, 그리고 자연 전체의 힘과 에너지의 순환 속으로 끼워 넣어진다. 소용돌이치는 마술적 힘들은 특별히 정착하는 장소들이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춤이나 발성 수행자의 비전은 우주에서 활동하는 힘들과 결합한다. 신체 깊숙한 곳으로부터 뿜아내는 발성 수행자의 목소리는 사이버 종교의식에서 보여지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넘어서 구경꾼까지 그 힘이 전달된다. 그점은 작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상 내부에 어느 정도는 침투해 있음을 알려준다. 그의 작품들 하나 하나에는 '그럴듯함'을 연출하기 위한 정교한 장치들이 존재한다. 특히 검정 볼두 앞에서 펼쳐지는 상호작용적인 디지털 만다라는 만다라의 현대적인 버전이다. 기하학적이고 상징적인 형상들을 갖춘 만다라는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상징의 형식으로, 원래 본질(Manda)을 소유(la)한 것이라는 의미와 깨달음의 경지를 도형화한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끝없이 이미지가 흘러가는 이한수의 만다라는 정신을 집중시키기보다는 탈중심화 시킨다.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탈중심화가 현실에서 점증하고 있는 의미 파괴와 주체의 파괴에 대한 반영이라고 지적한다. 그의 종교적인 도상자체가 교란된 존재를 압축하는 것이며, 이는 통일적인 자아의 신화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작품에는 끝없이 경계를 넘어서고 확장하려는 의지가 존재한다. 그것이 매체의 힘을 통해 증폭된다. 맥루한이 말하듯 기계시대에는 우리의 육체를 공간적으로 확장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중추신경을 전 지구로 확장시킨다. 이러한 '의식의 확장'은 현대과학과 신비주의를 결합시킨다. 실재의 사라짐은 자연과 인간, 즉 객체와 주체간의 상호결합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한수는 레이저를 비롯한 기술적 매체들을 주체의 교란을 피하는데 사용한다. 그것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경계소멸과 비합리주의를 만들어내는 현대문화의 특징이다. 거울반사처럼 펼쳐지는 즉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간격을 환영을 통해서 메워버린다. 매체는 실재와 복제된 이미지의 간격을 용해시키는 것이다. 이 닫혀진 공간과 붕괴된 시간 속에서 이미지들은 덧없이 공전한다. 이 순환적인 공간 속의 주체는 거울효과를 지니는 매체들 사이에서, 과거나 미래의 의미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현재의 시간에 머물게 된다. 그것은 거울의 방 속의 메아리 효과인 것이다. 관객은 이 메아리 속에서 확장된 자아에 사로잡힌다.

비평가 테리 이글턴은 이제 미술이 반영할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이미 현실 자체가 이미지, 구경거리, 환영, 허구가 아닌 것이 없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대중매체가 너무 강력하게 모든 것을 휩쓸고 있어서, 대중매체가 재현하는 현실과, 실제 살아가는 현실과의 차이가 폐기될 정도이며, 이제 영상과 삶은 하나가 되었다. 결국 현대 예술가는 모형화 된 현실을 다시 모사 하는데 익숙해진다. 그 결과가 탈경계화, 주체의 해체(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숭고sublime의 문화, 즉 포스트 모던 문화이다. 이한수의 작품은 이 새로운 숭고의 미학을 잡종 종교라는 모티브를 통해 보여준다. 그것은 현대의 범신론과 신비주의 문화와도 닿아있다. 대중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공해 주는 이러한 새로운 유심론은 초현대식 스튜디오에서 합성된다. 이미 실재와 허구를 나누는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작가로서는 그것이 테크놀로지든, 사이버 종교이든, 천박한 대중문화든 순수예술이든 무엇이든 상관할 바가 없다.

이선영_미술과 담론

In the venue thoroughly excluding outside lights by thick black curtains are all kinds of religious icons. The place itself looks like befitting the set of a psedo-religion in that the darker it is, the stronger its illusion and fantasy are seductive. Under the subtitle of "MU A Mon Project" the exhibit explores hybrid aesthetics through combining a monster intermingled and a mood of selflessness. Lee Han-soo intends t

to offer a vision, crossing the borders between past and present, illusion and reality. Titled "A Fairy with Thousand Eyes," a statue icon is the combination of the Taoist face, Buddha's body and angel's wings.

Painted with fluorescent, primary colors and set under black lighting, it intensively gives stimulating visual images. The statue has the lasers - symbolic of the thousand eyes originated from "Indra" in Hindu myth - embedded on its whole body, radiating red laser patterns in all directions. Those patterns such as the shapes of angels known as asexual and female nudes seemingly used in a brothel signboard are floating in disorder.

The work entitled "Black Heads with Baikho" is an interactive video installation. In the work the black heads with the lasers in them are placed in a regular space. The patterns projected by the lasers, symbolic of thousand eyes appear greatly dynamic. Between the head's eyebrows are the web-camcorders through which the real-time scenes of the viewers are taken, metamorphosed and reflected onto the opposite wall in the form of Mandala. The viewers are seen enlarged or reduced by a distant detecting sensor on the heads. Through the third eye, "Baikho" our scenes are digitally reconstituted in the form of Mandala. The digital Mandala displayed before the lying black heads, despite its variability, maintains a meditative mood.

In a video single-channel work occupying the entire wall surface a woman in a space suit sits with her legs crossed, muttering incantations. The woman sitting with an alien mask and against a backdrop of beautiful scenery, rainbow and erratic symbols is a follower of the religion claiming that aliens created humans. If a meditator utters sounds after bringing all his 'Gi' together, some scenes seen through the monitor become uneven here and there. The artist says it is symbolic of the movement of unidentified creatures. As if seen through a magnifying glass, the scenes seem distorted and enlarged wherever they overlap. In "Mu A Dance" a woman is slowly dancing a Mu A Dance to the meditation music. The dancing woman, buoyant in the air seems exactly one with the symmetry of upper and lower parts.

Pierre Gaudibert points out modern culture now develops into something sacred, beyond the merely cultural. Sacredness here of course refers to something inevitably mixed with the secular, rather than facing them. Lee Han-soo has tirelessly endeavored to fuse and crossbreed a wide variety of elements. His fanatic clinging to blending intercultural factors paradoxically proves all cultures of the globe have already been in a state of extreme homogeneousness.

Although everyone has been desanctified by modernization, a human being is intrinsically religious. If not established religions, he believes in anything: he often believes in advancement, reason, money, art, and so on. Works of Lee Han-soo with their religious icons thus tries to be a commercially seductive product to the general public.

Both in "Mu A Om" and "MU A Dance" some scenes are considered quite supernatural: Spirit has a first-hand impact on nature and disregarding the law of gravity, a behavior is done. It exactly coincides with a terminological definition of the word 'magic': 'Magic' refers to a technique that causes effects going against a law of nature. Magic utilizes not the law of cause-effect determinism but others. Even if Fraser disparaged it as the 'false knowledge like an unripe technique,' a magician is truly avant-garde in the

age of simulation in which the true appear indistinguishable from the false. In this sense scientists, artists and merchants have a rendezvous at the crossroads of 'magic'.

In his work a vision of dance and utterance practitioners unites the force of space. Their voice extracted from a depth of the body is powerful enough to be conveyed to the viewers. To make his work look 'plausible' an elaborate apparatus is being adopted. The manifestation of a digital Mandala is interactively done as a contemporary version of Mandala. Its shape geometrical and emblematic is to represent the truth of the universe, showing in figure a state of enlightenment and its meanings that we all 'possess' (la) 'true nature' (Manda).

Lee's Mandala whose image flows boundlessly does not centralize our spirit but decentralize it. Such 'decentralization,' modern philosophers point out, reflects the destruction of meanings and the subject. His religious icon, the digital Mandala is a contracted representation of the subject in disorder, implying that the myth of unified self has been collapsed. His work carries a tireless will to cross borders and extend its realms. Such will is further strengthened by force of media. As Marshall McLuhan comments in the age of machine we extend our body spatially, but nowadays we expand our central nerve and consciousness. Real being no longer exists as the result of interconnections between man and nature, subject and object.

The critic Terry Eagleton indicates the arts now have nothing to reflect and reality itself turns to an image, illusion, fiction and a spectacle. As the influence of the mass media is massively powerful, the world it represents is no longer distinguishable from the real one we are actually living. Our life and the mass media become one at last. An artistic work thus is referred to as the recopy of reality that is presented by the mass media. Lee's work demonstrates the sublime through the motive of a hybrid religion. His work seems to offer the public dream and vision. As an artist who attempts to break down barriers between reality and fiction, he does not mind if his art remains highbrow or lowbrow, pure art or mass culture.

By Lee Sun-young, Art and Discourse